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눈 감고 하나 둘 셋 뛰어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배점은 2점 또는 3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공통과목 ..... 1~12쪽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13~16쪽
  - 언어와 매체 ..... 17~20쪽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제 1 교시

## 국어 영역

## 수능맛집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를 넘어,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의 핵심적인 활동 중 하나가 ‘요약하기’이다. 요약이란 글의 중심 내용을 선별하여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텍스트의 표면적 정보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구조와 필자의 의도까지 깊이 있게 파악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성공적인 요약을 위해서는 텍스트의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처리하는 일련의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요약 규칙으로는 ‘삭제’, ‘일반화’, ‘구성’이 있다. 삭제는 글의 핵심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세부 정보나 반복되는 내용을 생략하는 것이다. 일반화는 하위 항목들의 목록을 그것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대체하는 규칙이다. 가령, ‘사과, 배, 딸기, 포도’와 같은 구체적인 과일의 나열을 ‘여러 과일’이라는 상위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구성은 일련의 사건이나 사실들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장을 추론하여 생성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규칙이다. 예를 들어, ‘기차역에 갔다.’, ‘매포소에서 표를 샀다.’, ‘플랫폼으로 이동했다.’, ‘기차에 올랐다.’와 같은 문장들을 ‘기차를 탔다.’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약 규칙들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적극적인 사고 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독자는 글을 읽으며 자신의 배경지식과 독서 목적을 바탕으로 무엇이 텍스트의 핵심 주제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판단이 있어야 어떤 정보를 삭제하고 어떤 정보를 일반화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 전체의 구조가 문제 해결, 원인과 결과, 시간 순서 중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었는지를 파악해야 그 논리적 흐름을 요약에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 결국 요약하기는 텍스트의 정보를 선별하고 압축하는 기술인 동시에, 자신의 이해 과정을 점검하고 심화시키는 고도의 지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삭제 규칙은 글의 세부 정보를 생략하여 핵심 내용만을 남기는 과정과 관련된다.
- ② 독자의 독서 목적은 요약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중요하게 판단할지에 영향을 미친다.
- ③ 일반화 규칙은 여러 개의 구체적인 사례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다.
- ④ 글을 요약하는 활동은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고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⑤ 구성 규칙은 여러 문장에 담긴 내용을 포괄하는 하나의 문장을 추론하여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2.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요약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독서 목적과 같은 주관적 요소가 개입된다.
- ② 완성도 높은 요약문은 원문의 핵심 내용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원문의 논리적 흐름까지 반영해야 한다.
- ③ 요약하기는 글의 내용을 압축하는 기술적 측면과 함께, 독자 스스로 이해의 정도를 점검하는 과정적 측면을 포함한다.
- ④ 글의 핵심 주제를 먼저 파악해야 삭제하거나 일반화할 정보를 올바르게 선별할 수 있다.
- ⑤ 독자는 요약 규칙들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글의 핵심 주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lt;보기&gt;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학생이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에 대한 글을 읽고 다음과 같이 메모했다.

**[원문 내용]**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포함했고, 중인은 역관, 의관, 율관 등을 포함했으며, 상민은 농민, 수공업자, 상인을 포함했다. 천민에는 노비, 백정 등이 있었다...

**[학생의 요약]** 조선 시대에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네 가지 신분 계층이 있었다.

- ① 학생은 원문의 일부 정보를 빠뜨렸으므로, 삭제 규칙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군.
- ② 학생은 여러 구체적인 신분 항목들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 표현하는 일반화 규칙을 활용하여 내용을 요약하였군.
- ③ 학생은 원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추론해내는 구성 규칙을 통해 핵심 내용을 성공적으로 도출하였군.
- ④ 학생은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각 신분의 구체적인 종류를 파악하지 못하고 요약하였군.
- ⑤ 학생은 텍스트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여, 원문의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에서 요약하는 데 그쳤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법은 그 자체로 명확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 의미가 구체화된다. 법 해석의 가장 전통적인 관점인 문언해석은 법조문에 사용된 문언, 즉 단어와 문장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법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문언해석은 사회가 변화하며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처하기 어렵거나, 법조문이 담고 있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문언해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목적론적 해석이다. 이 관점은 법이 제정된 목적, 즉 입법 취지를 탐구하고 그 목적 실현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가령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의 소지를 금지하는 법이 있을 때, 문언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아 보이는 물건이라도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과 맥락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목적이 명백하다면, 목적론적 해석은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여 법의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처럼 법의 목적을 중시함으로써 사회적 타당성과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목적론적 해석이 과도할 경우, 법관의 주관적 가치 판단이 법의 해석에 깊이 개입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목적’이라는 불확정적인 개념에 대한 해석이 법관마다 달라진다면, 유사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법에 대한 불신을 낳고, 사람들은 분쟁이 생길 때마다 법원의 판단을 예측할 수 없어 혼란을 겪게 된다. 결국 법 해석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법의 권위가 훼손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드워킨의 ‘통합으로서의 법 해석’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법 해석은 단순히 법조문의 문법적 의미를 밝히거나 입법자의 주관적 의도를 추측하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해당 법이 공동체의 법질서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그 정당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의미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즉, 법관은 해당 법조문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법률, 기존의 판례, 그리고 그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와 공평의 원칙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치 ㉢진 연작 소설의 다음 편을 쓰는 작가처럼,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문제를 가장 일관되게 이어주는 최선의 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법 해석의 기준을 법관 개인의 주관이 아닌 공동체의 법적 실천이라는 객관적 토대 위에 ㉣세우고자 한 것이다.

(나)

상가 임대차에서 이전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쌓아 올린 유·무형의 가치를 현재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관행을 ‘권리금’이라 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권리금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임대인이 바뀌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과 노력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두고 해석상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가 있는가’가 핵심 쟁점이었다. ㉥1심 법원에서는 주로 문언해석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 조항과 권리금 보호 조항은 별개의 조문이므로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즉,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된 장기 임차인이라도 권리금 보호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각 법조문의 독립된 문언적 의미를 존중한 결과였다.

하지만 ㉦2심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목적은 임차인이 투자 비용을 회수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는데, 10년 이상 장기간 영업한 임차인은 이미 그 비용을 회수할 기회가 충분했으므로 더 이상 권리금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 경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또 다른 법적 가치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의 혼란 속에서, 2019년 ㉨대법원은 1,2심 법원과 다른 해석의 관점을 제시하며 논쟁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먼저 법조문의 문언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조항이 서로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입법자가 권리금 보호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임차인의 투자 자본 회수’라는 목적과,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헌법적 가치,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형성되어 온 ‘권리금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임대인은 여전히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법조문의 문언을 존중하면서도, 법 제도의 목적과 우리 공동체의 역사적 실천을 아우르는 가장 일관된 해석을 내린 사례로 평가받는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법을 해석하는 여러 관점의 특징을, (나)는 이러한 관점들이 실제 법적 분쟁에서 적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 ② (가)는 특정 법률이 시대에 따라 변천해 온 과정을, (나)는 해당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법 해석의 통일된 원칙을 제시하고, (나)는 그 원칙이 현실에서 구현될 때 발생하는 한계점을 보여준다.
- ④ (나)는 (가)에서 제시된 관점 중 하나의 관점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법 해석 과정에서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5. [A]를 바탕으로 목적론적 해석이 지닌 위험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 ②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우선시되면서, 법조문이 지닌 본래의 의미와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 ③ 법 해석의 기준이 법관마다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어 공동체의 신뢰를 잃게 된다.
- ④ 과거의 판례와 공동체의 원칙을 과도하게 존중한 나머지, 구체적인 사건에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 ⑤ 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

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법 제정의 사회적 목표를 중심으로, 상충하는 가치들을 조정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찾고자 하였다.
- ② ㉡은 법조문에 기록된 문구의 의미를 맥락에 따라 해석하여, 법 해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 ③ ㉢은 법조문과 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 ④ ㉠과 ㉡은 법 해석의 기준을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둬으로써 공동체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 ⑤ ㉡과 ㉢은 법 조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7. ㉤의 문맥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변화에 발맞춰 이에 맞는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
- ② 법 해석의 판단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권위가 일반에 유지되도록 하는 것
- ③ 법 조문의 어휘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 ④ 법 해석의 결론이 사회의 맥락에 부합하도록 같은 의미를 지녀야 한다는 것
- ⑤ 상황과 맥락에 맞게 불확정적인 해석을 확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8. 윗글을 읽고 〈보기〉의 상황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임차인 ‘갑’은 한 상가에서 12년 동안 영업하며 상당한 가치의 권리금을 형성하였다.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갑’은 새로운 임차인 ‘병’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을’에게 ‘병’과의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주선하였다. 그러나 ‘을’은 ‘건물 전체를 재건축할 계획이 있으므로 신규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갑’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① ‘을’의 재건축 계획이 법조문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을’이 ‘갑’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군.
- ② 12년간 영업한 ‘갑’이 이미 투자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볼 경우, ‘을’의 거절을 법의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겠군.
- ③ ‘을’의 재건축 계획이 정당하다고 볼 경우, ‘병’이 재건축된 상가에 들어가게 된다면 ‘병’은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겠군.
- ④ 만약 ‘갑’의 영업 기간이 10년 미만이었다면, 어떤 법 해석 관점에서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갑’과 ‘병’이 체결한 권리금 계약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겠군.
- ⑤ 통합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을’은 ‘갑’에게 권리금을 지불해야 하겠군.

9.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그는 그녀를 아내로 살고 싶었지만, 집안의 반대가 심했다.
- ② ㉡: 그는 주머니에 날카로운 칼을 지닌 채로 거리를 활보했다.
- ③ ㉢: 선생님의 위대한 업적을 세워 드리기 위해 노력했다.
- ④ ㉣: 숙부께서는 당신 가족의 생계를 끝까지 책임을 지다가 병을 얻으셨다.
- ⑤ ㉤: 난해한 기호로 가득한 고대의 문자를 성공적으로 해석하여 학계에 보고했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로 콜라는 설탕을 인공 감미료로 대체하여 열량 없이 단맛을 구현한 음료이다. 제로 콜라는 감미료의 첨가, 추가, 혼합 및 배합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제로 콜라의 단맛을 내는 데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과 같은 고강도 감미료이다. 이 물질들은 설탕의 수백 배에 달하는 감미도를 지녀 극소량만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어 음료의 열량을 거의 없애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들은 설탕과 단맛의 발현 및 지속 시간이 다르고, 특유의 쓴 뒷맛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설탕이 가진 점도를 제공하지 못해 음료의 질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다.

고강도 감미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에리트리톨과 같은 중량 감미료가 함께 사용된다. 에리트리톨은 감미도가 설탕보다 낮지만, 청량한 단맛을 내어 고강도 감미료의 뒷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설탕과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가져 질감을 일부 보완하기도 한다. 부족한 질감을 완벽히 구현하기 위해 난소화성말토덱스트르와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나 구아검 등을 첨가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음료의 점도를 높여 설탕이 있을 때와 유사한 묵직한 질감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완성된 제로 콜라 원액이 기존 콜라의 맛을 얼마나 유사하게 구현했는지는 관능 평가를 통해 검증된다. 관능 평가는 인간의 오감을 이용해 제품의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과학적 방법이다. 훈련된 전문 패널들이 단맛의 발현 속도, 뒷맛의 강도, 질감, 탄산의 청량감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콜라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감미료와 첨가물의 최적 배합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다.

한편, 제로 콜라에 사용된 인공 감미료의 안전한 섭취 기준은 일일 섭취허용량(ADI)이라는 국제적인 평가 방법을 통해 설정된다. 이는 성인이 평생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의미한다. 일일섭취허용량은 동물 실험으로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은 최대량을 산출한 뒤, 인간과 동물 간의 차이 및 개인 간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통상 100분의 1 수준으로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설정된 기준에 따라 제품의 권장 섭취량이 정해진다.

10. 내용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문단에 언급된 제로콜라가 2문단과 3문단의 다양한 첨가물 기술을 통해 개발되었다는 과정을 파악하며 읽는다.
- ② 2문단의 고강도 감미료가 지닌 문제점과, 3문단에서 제시된 다른 첨가물들이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연결하며 읽는다.
- ③ 4문단에 소개된 관능 평가가, 앞서 설명된 복잡한 배합 과정의 최종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여 읽는다.
- ④ 5문단에 제시된 일일섭취허용량(ADI) 설정 방식이, 2, 3문단에서 언급된 인공 감미료 섭취의 안전성 기준이 됨을 이해하며 읽는다.
- ⑤ 2문단의 아세설팜 칼륨과 3문단의 구아검을,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경쟁적인 기술로 파악하고 그 우열 관계를 비교하며 읽는다.

1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레트리톨은 수용성 식이섬유에 비해 설탕의 질감을 더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 ② 관능 평가는 훈련된 패널의 주관적 선호도를 바탕으로 최적의 배합 비율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 ③ 설탕은 단일 물질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제로 콜라는 여러 물질의 조합을 통해 설탕의 기능을 재현한다.
- ④ 제로 콜라가 구현해야 할 설탕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쓴 뒷맛을 제거하는 것이다.
- ⑤ 제로 콜라의 원액은 감미료의 배합만으로 완성되며, 수용성 식이섬유 등은 혼합 과정에서 추가된다.

12. 일일섭취허용량(ADI)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물질을 평생 매일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해가 없는 양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 ②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한 장치가 사용된다.
- ③ 감미료의 배합이 달라지면 권장 섭취량이 달라질 것이다.
- ④ 동물 실험에서 유해한 영향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최소량을 기준으로 인체 적용량이 계산된다.
- ⑤ 종(種)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종 내의 개인별 민감도 차이까지 고려하여 설정된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제로 콜라 개발팀은 기존 콜라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네 가지 감미료 A~D의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조합을 찾고자 한다.					
감미료	단맛 지속 시간	쓴맛	질감	점도	ADI
A	길	강함	없음	낮음	50mg/kg
B	짧음	약함	없음	없음	40mg/kg
C	짧음	없음	약함	보통	1000mg/kg
D	없음	없음	강함	높음	10mg/kg

\*mg/kg: 1kg당 일일 허용 섭취량

- ① A와 B만을 조합하면, 쓴맛은 강하게 남지만 설탕과 유사한 질감을 구현할 수 있겠군.
- ② C와 D를 조합하게 된다면 질감과 점도를 설탕과 유사하게 만들 수 있으며, ADI 기준을 통과하기 수월하겠군.
- ③ D는 질감과 점도가 높아 기존 콜라맛을 구현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단독으로 사용하여 제로 콜라를 제조할 수 있겠군.
- ④ B와 C를 조합하는 것이 단맛을 유지하면서도 쓴맛을 최소화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겠군.
- ⑤ 체중 60kg인 성인이 A가 포함된 음료를 통해 A를 하루 3,500mg 섭취했다면, ADI 기준치를 충족한 것이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술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을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자 인간의 활동 그 자체로 이해한다. 이처럼 기술을 단순히 인간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보는 관점을 기술의 도구적·인간학적 규정이라 한다. 이는 기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견해이지만,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러한 규정이 기술의 피상적인 모습만을 설명할 뿐, 그 본질을 드러내지는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기술의 진정한 본질을 파악해야만 우리는 기술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의 기술인 ‘테크네(technē)’와 현대 기술을 구분한다. 그에게 있어 고대의 기술은 자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어 밖으로 내놓는 활동, 즉 ‘산출(Poiesis)’이었다. 예를 들어, 농부가 밭을 가는 행위는 땅이 품고 있는 생산력을 밖으로 이끌어 내 곡식이 자라도록 돕는 것이다. 이처럼 ‘테크네’로서의 기술은 자연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의 본질은 ‘산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진단한다. 그는 현대 기술의 본질을 ‘몰아세움(Gestell)’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몰아세움’은 자연을 향해 숨겨진 에너지를 끄집어내어 저장하라고 요구하는, 폭력적이고 도전적인 명령이다. 예컨대 라인강에 건설된 수력발전소에게 강은 오직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의 부품일 뿐이다. 이처럼 ‘몰아세움’의 방식 앞에서, 자연은 더 이상 스스로를 드러내는 주체가 아니라 인간의 요구에 따라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거대한 저장고로 ㉔전락한다.

하이데거가 경고한 현대 기술의 가장 큰 위험은 이러한 ‘몰아세움’의 시선이 인간에게도 향한다는 점이다. 기술의 지배 아래에서 인간 역시 효율성과 유용성의 잣대로만 평가되는 인적 자원이라는 ‘부품’이 되어버릴 위험에 처한다. 기술의 주인이라 생각했던 인간이 역으로 기술의 작동 방식에 종속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기술의 폭력성 앞에서 무력하기만 한 존재인가? 하이데거는 ㉕“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의 힘도 함께 자란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가 기술의 본질인 ‘몰아세움’을 직시하고 성찰할 때, 비로소 기술로부터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예술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았는데, 예술은 고대의 ‘테크네’처럼 진리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이용 가능한 부품이 아닌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로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술과 올바르게 공존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14. 윗글의 하이데거의 입장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구적·인간학적 규정은 기술의 본질적 위험을 간과할 수 있다.
- ② 고대의 기술은 자연에 미리 정해진 요구를 강요하지 않았다.
- ③ 현대 기술은 대상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성한다.
- ④ 기술의 지배하에서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지 못할 수 있다.
- ⑤ 예술적 사유는 현대 기술을 대체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한다.

15. 문맥상 ㉖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대 기술이 초래한 위기는 기술을 완전히 거부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
- ② 인간은 위험한 상황일수록 잠재된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낸다.
- ③ 기술의 본질이 지닌 위험성 자체가 그것을 극복할 실마리를 내포하고 있다.
- ④ 모든 위험한 상황은 결국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라는 낙관적 믿음이다.
- ⑤ 인간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찾으려는 의지를 지닌 존재이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기술이 가치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며 인간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한다는 하이데거의 통찰에 대하여 비판적 기술 이론가들은 기술의 본질이 ‘몰아세움’이라는 단일하고 고정된 것으로 결정된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에 따르면 기술은 사회적 가치와 권력 관계가 각인되는 투쟁의 장이며, 기술의 발전 방향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술이 초래하는 위험은 기술의 본질을 성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기술의 설계와 제도 자체를 사회적 가치에 맞게 재구성하는 ‘기술의 민주화’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

- ① 비판적 기술 이론가들이 기술의 발전 방향이 사회적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대 기술의 본질을 ‘몰아세움’으로 규정한 하이데거와 상충하겠군.
- ② 비판적 기술 이론가들이 기술의 문제를 민주적 참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예술적 사유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은 하이데거와 상충하겠군.
- ③ 하이데거가 인간이 기술의 작동 방식에 종속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기술의 재구성을 위한 인간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하는 비판적 기술 이론가들의 견해와 상충하겠군.
- ④ 비판적 기술 이론가들이 기술이 가치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기술이 세계를 특정 방식으로 드러내는 본질을 지닌다고 본 하이데거와 상충하지 않겠군.
- ⑤ 비판적 기술 이론가들이 현대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기술이 자연의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 하이데거와 상충하지 않겠군.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변화한다
- ② 귀결된다
- ③ 내몰린다
- ④ 규정된다
- ⑤ 이동한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답사 여행을 떠나는 일행을 놓쳐 일행을 찾으러 가던 중 휴게소에 들러 과거 누나와 새를 찾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어느 날 밤, 누나와 나는 한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 ㉠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집을 후리러 다녔지만 누나와 나는 언제나 허탕이었다. 그날도 역시 텐찌꾼\*들의 분탕질에 허탕을 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구태여 텐찌꾼들을 저주하거나 타박할 까닭이 없다는 발견이 그것이었다. 그것은 간단했다. 바로 우리 집도 새들이 곧잘 깃을 트는 초가집이었고, 초가집인 이상, 필경 어느 집들처럼 대어섯 군데의 새집은 있을 것이라는 일이었다. 우리 집도 텐찌꾼들의 순례 목표에 포함되어 있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었다. 역시 내 생각이 옳았던 것은 내 말을 듣고 난 누나가,

㉡ “우약꼬, 니 말이 딱 맞따대이. 우약꼬, 내가 입때까지 고걸 생각 못 했대이. 니 말이 맞대이.”

우리 집인 이상 우선 삼작을 단아걸어서 텐찌꾼들의 범접을 딱 잘라서 거절하고 누나와 내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새집을 후릴 수가 있지 않은가. 그 간단하면서도 **보장된 성과**를 발견한 우리는 흥분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새들을 후리는 일에 착수했다. 우선 윗방의 문을 활짝 열었다. 너무 어두웠기에 방에 켜둔 불빛을 이용하자는 심산에서였다. 역시 내가 누나의 무등을 탔다.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집의 이영의 켜에도 새집들이 들어 있었다. 두 번째까지는 허탕을 쳤지만 세 번째의 집에서 나는 새를 잡았다. 살아 있는 새와의 첫 번째 만남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세 번째의 구멍 집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자마자 손끝에 와 닿는 몽클한 온기는 분명 새의 깃털이었다. 신선하다고는 볼 수 없는 그 온기가 감지되는 순간 나는 누나가 얘기했던 대로 무작정 각 **움켜쥐**었다. 거의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선 누나가 말해 준 대로 꼭 움켜쥐는 방법밖에 달리 요지부동의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첫 번째의 만남이란 언제나 방법이 서툴게 마련이고 그래서 실패의 확률은 높게 도사리고 있는 법이었다. 그리고 새는 눈으로 침입자를 노려보고 있었을 터였지만 내 무기는 눈이 없는 손이었다. 내가 새의 깃털을 꼭 움켜쥐는 순간, 나는 손바닥이 물어뜯기는 듯한 **따끔한 충격**을 동시에 받은 것 같았다. 착각이었는지도 모를 그 아픔에 나는 소리 치면서 구멍 집에서 손을 빼냈고 내가 손사래를 치는 동안 새는 구멍 집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그 순간 나는 잠시 허공에 떠 있었다. ㉢ 내가 구멍 집에서 열떨결에 손을 빼내어 흠뻑릴 때와 놀란 새가 구멍 집에서 빠져나온 것과 누나가 무등 태우고 있던 나를 내던지듯 내려놓고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닫은 것은 거의 동

시의 일이었다. 물론 나는 그 와중에 허공을 헛디디면서 마당으로 나가 뒹굴었다. 누나는 닫은 방문을 뒷짐을 진상태에서 단속하고 돌아선 자세에서 마당으로 나뒹구는 나를 바라보았으나 달려와서 부축할 의향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런 야멸스러운 외면은 내가 누나를 알고 난 이후 처음 겪는 일이었다. 놀란 상태에서 나는 누나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새 잡았대이.” / 그것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새가 누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아니었다. / “새가 **방으로 들어갔대이.**”

누나가 새를 잡았다고 단정 지어 말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물론이었다. 나도 그걸 믿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새를 놓칠 리는 없었다. 더구나 새가 방으로 날아들었다는 것은 열살을 먹어서 온전한 방향 감각을 잃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중략)

한 마리의 새가 허공을 굶고 내려오더니 부도 앞에 서 있는 작은 소나무 가지로 내려앉았다. 물론 나는 그 새가 허공에서부터 날아와 소나무 가지에 내려앉아, 꼼짝 않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다. ㉣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그 새뿐이었기 때문에 새는 당장 내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었고 또 정확하게 **그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매우 긴 시간이 흘렀다. 새는 날아가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소나무가 서 있는 곳은 내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불과 네댓 발자국의 거리였다. 과장된 말을 즐겨 쓰는 사람일 경우 팔을 뻗으면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기필코 새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잘라 말할 수 있다. 새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대로 **솔방울로 변**해서 나무와 같이 되고 말았다. 환시라기엔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했고 확실했다. 꼬박 스물 네 시간을 입에 곡기를 넣어 본 적이 없었지만 하루 허기로 정신이 몽롱하거나 열이 빠질 지경에까지 이르진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한 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솔방울로 변한 새가 다시 나는 새로 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묘한 일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 전체가 조금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툭 털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데도 그랬다.

나는 절터를 내려와 긴 계곡을 걸어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30분 정도 걸었을까. 계곡에 가로놓인 다리 아래 자갈밭에서 비둘기 떼가 내려앉은 듯이 웅기종기 모여서 밥을 짓고 있는 일단의 사람들을 보았다. 우리 일행은 나보다 먼저 출발했지만 그제서야 선림원 사지로 가는 길 초입에 이른 것이었다. ㉤ 그들이 나를 **따돌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따돌린 셈이었다**. 그들은 먼저 가본 선림원 사지에 대해 물었다.

“당신들 거기 가거든 부도 앞에 서 있는 소나무의 솔방울이 몇 개인가 그것 한번 헤아려보구려.”

“아니, 절터에 가서 솔방울만 헤아려보고 왔더라 말인가?”

“그럼 천 년 전 절터에 가서 소를 찾아볼까. 하긴 개는 한 마리 있더군.”

“나는 새의 미주알을 본다더니 원 별 소리를 다 들겠군.”

- 김주영, 「새를 찾아서」 -

\*텐찌꾼: 손전등 따위로 새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1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내면을 중심으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체험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적을 객관적인 태도로 묘사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③ 여러 인물의 시각을 교차하여 동일한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배경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여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1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속적인 실패의 경험이 ‘나’와 누나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 ② ㉡: ‘나’의 발견에 대한 누나의 감탄을 통해, 새를 잡으려는 공간적 배경이 외부에서 ‘우리 집’이라는 내부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 ③ ㉢: ‘나’가 놀라게 되는 원인으로, 누나의 행위에 대해 이전 유사한 경험을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④ ㉣: 주변의 정적인 분위기와 대비되는 대상의 움직임에 통해, 이후 이어질 비현실적 체험에 대한 ‘나’의 시각적 집중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⑤ ㉤: 일행을 먼저 발견하고도 그들을 앞서갔다고 인식하는 데에서, 상황에 대한 재인식을 통한 ‘나’의 변화된 관점을 엿볼 수 있다.

20. 방 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새를 포획하기 위해 활용한 공간으로, 대상을 소유하려는 ‘나’와 누나의 욕망이 집약된 곳이다.
- ② ‘나’와 누나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공간으로,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상징한다.
- ③ 현실로부터 단절된 채 ‘나’의 내면적 고뇌가 심화되는 공간으로, 화자의 내면세계를 상징한다.
- ④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새를 보호하는 안식처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간이다.
- ⑤ 새를 잡으려는 시도가 좌절되는 공간으로, 이상적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새를 찾아서』에서 ‘새’는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 가치를 상징하며, 화자의 여정은 이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화자는 ‘새’를 포획 가능한 고정된 실체로 인식하고, 이를 소유하고 박제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 반면, 현재의 화자는 방향의 과정 끝에 도달한 성찰의 공간에서 ‘새’가 술방울로 변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는 이상적 가치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물 속에서 생성하고 변화하는 과정 그 자체임을 깨닫는 전환적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① 어린 시절 새를 ‘움켜쥐’려던 행위의 실패는, 훗날 새가 ‘술방울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며 이상적 가치는 소유가 아닌 과정 속에 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있군.
- ② ‘술방울로 나는 새가 다시 나는 새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가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가 ‘새’에서 ‘술방울’로 역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군.
- ③ ‘나’가 우리집의 새를 ‘보장된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소유욕을, 소나무에 앉는 새를 ‘놓치지 않고 바라 보’는 것은 방향이 있어야 성찰이 가능함을 깨닫게 되는 과정임을 보여주는군.
- ④ 누나가 ‘새가 방으로 들어갔대이’라고 말하는 모습은, 이상적 가치를 소유하려는 화자의 욕망이 역전되어 타인의 욕망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 ⑤ ‘나’가 텨꾼들을 ‘타박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이상적 가치를 소유하려는 욕망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내재함을 성찰하며 타인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남대문 밖 뽕덕어멈 천성(天性)이 그러한가  
배워서 저러한가 본데없이 자랐구나  
여기저기 무릎맞춤 싸움질로 세월이요  
[A] 나가면은 이간질이요 들면서 음식 공론  
제 조상(祖上)은 젓혀 놓고 불공(佛供)하기 위업(爲業)이라  
당 소경 푸닥거리 의복가지 다 나가고  
남편 모양 불작시면 삼살개 뒹다리라  
자식 거동 불작시면 털 벗은 술개미라  
옛장수 떡장수는 아이 핑계 거르지 않고  
①물레 앞 씨아 앞은 선하품 기지개라  
이야기책 소일에 음담패설 요기로다  
이 집 저 집 이간질로 모함 잡고 똥 먹이며  
인물 초인 떨려 나기\* 패(佩)쪽박이 되겠구나  
세간은 줄어지고 걱정만 늘어 가네  
치마는 짧아 가고 허리통이 길어 간다  
총 없는 헌 짚신에 어린 자식 들쳐 업고

혼인 장사(葬事) 집집마다 음식 추심 일을 삼아  
 꾀 양식 거울러라 한번 곡회\* 하여 보자

- [B] 아이 싸움 어른 싸움 가부지죄\* 때 맞히고  
 공연히 성을 내어 무죄한 자식 치기  
 씨앗을 남을 주고 중매아비 원망이라  
 며느리를 쫓았으니 아들은 홀아비요  
 딸자식을 데려오니 남의 집 결판일네  
 목구멍이 드슈하면 무례무의(無禮無義) 음란이요  
 두 손뼉을 두드리며 방성대곡 해괴하다

무슨 꼴에 생투기로 머리 싸 드러놓고  
 간부(姦夫) 달고 달아나다 관비(官婢) 정속\* 호뭇하다  
 무식한 창생(蒼生)들아 저 거동(舉動)을 자세히 보소  
 그른 줄을 알았거든 고칠 개(改) 자 힘을 쓰고  
 옳은 줄로 알량이면 행하기를 위주(爲主)하소  
 아무리 용렬하나 그름 옳음 모를쏜가

- 작자미상, 「용부가」 -

\*인물 초인 펴려 나기: 외간 남자를 끌어들었다가 쫓겨나기.

\*곡회: 친구끼리 모여서 즐겁게 술을 마시는 일.

\*가부지죄: 부인의 잘못으로 남편이 벌을 받게 됨.

\*관비 정속: 죄를 범한 여자를 관비로 소속시키는 것

(나)

실용이 계속해서 허자에게 일러 주었다.

“강과 바다의 물과 사람과 모든 만물이 땅의 윗면에만 모여 산다면, 중국과 그 주변 국가의 수만 리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모두가 고르게 평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태산과 같은 큰 산봉우리나, 바다 너머에 있는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면 한눈에 빠짐없이 모두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하냐?”

허자가 대답했다.

“제가 평소에 사람의 시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들었지만, 이치로 보아 혹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실용이 말했다.

“사람의 시력이란 본래 한계가 있는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바다에서 보면 해와 달이 바다에서 나왔다가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들에서 보면 해와 달이 들에서 나왔다가 들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하늘은 바다와 맞닿아 있고 들은 막힘이 없으니 시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땅의 측량은 하늘의 관측을 기준으로 하는데, 하늘의 관측은 남북의 양극에 근본 기준을 둔다. 그리고 하늘을 관측하는 방법에는 세로로 관측하는 경, 경도와 가로로 관측하는 위, 위도가 있다. 또 선을 드리워 놓고 그 직선의 각도를 바라보며 측량하는 것을 천정이라 하고, 극에서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 위도가 얼마인가로 나타낸다. 지금 중국에서 배와 수레가 통하는 곳으로 북쪽에는 아라사가 있고, 남쪽에는 금변국이 있다. 아라사의 천정은 북쪽으로 20도이고, 금변국의 천정은 남쪽으로 남극과 60도를 이룬다. 두 천정 사이는 90도이고, 두 지역 간 거리는 2만 2,500리이다. 그런데 아라사 사람은 아라사를 정기준의 세계로 삼아 금변국을 옆쪽의 세계라 말하며, 금변국 사람은 금변국을 정기준의 세계로 삼아 아라사를 옆쪽의 세계로 일컫는다. 또 중국은 서양과 경도의 차이가 180도에 이르는데, 중국 사람

은 중국을 정기준의 세계로 삼아 서양을 반대쪽의 세계로 여기고, 서양 사람은 서양을 정기준의 세계로 삼아 중국을 반대쪽의 세계로 여긴다. 그러나 사실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 다 그러하니, 옆쪽의 세계도 없고 반대쪽의 세계도 없이 모두 똑같은 정기준의 세계이다. ㉔세상 사람들은 옛것에 안주하여 그저 습관처럼 따르면서 새로운 것을 살피지 않는다. 이치가 눈앞에 있는데도 일찍이 탐구하여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한평생을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살아가건만 그 실제 상황과 현상에 대해서는 캄캄하게 모르는 것이다.”

- 홍대용, 「의산문답」 -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부정적 인물의 행적을 열거하는 방식을, (나)는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독자에게 교훈적 깨달음을 주고 있다.
- ② (가)는 인간과 대비되는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나)는 불변하는 자연의 질서를 통해 당대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③ (가)는 가부장적 사회의 부조리를, (나)는 중화사상이라는 지배적 이념을 우의적인 방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④ (가)는 서술자가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목소리를, (나)는 특정 인물이 자신의 무지를 점차 깨달아 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와 대비되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3. ㉔와 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는 개인이 처한 불가피한 현실을, ㉔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개인의 의지를 나타낸다.
- ② ㉔는 당대 여성 전체의 보편적 삶의 양상을, ㉔는 특정 인물인에게 국한된 문제점을 지적한다.
- ③ ㉔는 부조리한 사회의 억압적 구조를, ㉔는 당대 이념이 가진 한계를 드러낸다.
- ④ ㉔는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개인의 태만함을, ㉔는 새로운 이치를 탐구하지 않는 세태를 보여준다.
- ⑤ ㉔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㉔는 진리를 깨달은 인물의 생각을 보여준다.

24. (나)의 실용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답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사고를 점진적으로 이끌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지명과 수치를 근거로 들어 자기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③ 경험적 관찰에 기반한 사례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일반적인 통념을 반박하고 있다.
- ④ 권위 있는 옛 성인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지닌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한계를 지적한 후, 논의를 보편적인 문제로 확장하여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25.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인물의 개인적 결함을, [B]는 인물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A]는 인물이 가난에 이르게 된 과정을, [B]는 가난을 극복하려는 인물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 ③ [A]는 인물의 비도덕적 행실을, [B]는 그로 인해 주변 인물들이 겪는 피해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A]는 인물의 타고난 성품을, [B]는 인물이 성장하며 배우게 된 잘못된 습관을 지적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인물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되는 계기를 보여주고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고전 문학에서 작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을 비판하고 독자를 교화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대상을 부정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때 비판의 대상이 윤리적 규범을 어긴 개인의 일탈에 집중될 경우, 작품은 독자의 도덕적 성찰을 촉구하는 성격을 띤다. 반면, 비판의 대상이 이성적 사유를 결여한 집단의 인식으로 확장될 경우, 작품은 낡은 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계몽적 성격을 띤다.

- ① (가)에서 인물이 ‘아이 핑계’를 대거나 ‘음식 추심’을 하는 것은 특정 대상의 부정적 면모를 구체적으로 부각하는 것이군.
- ② (나)에서 ‘실용’이 ‘허자’의 생각을 비판하는 것은, ‘사람들’ 전체로 확장되어 낡은 관념을 타파하려는 계몽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③ (가)의 ‘무례무의 음란’은 윤리적 규범의, (나)의 ‘깜깜하게 모르는 것’은 이성적 사유의 부재를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겠군.
- ④ ④ (가)에서 인물이 ‘관비 정숙’하게 된 것은 집단의 기강이 재확립되는 것을, (나)에서 ‘시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집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군.
- ⑤ (가)의 ‘고칠 개자 힘을 쓰고’는 윤리적 성찰의 촉구를, (나)의 ‘다 그러하’다는 것은 새로운 관념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머언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드리인 오랑캐의 뒷머리<sup>1</sup>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떠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 갔단다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구름이 모여 골짜 골짜를 구름이 흘러  
백 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  
울어 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

- 이용악, 「오랑캐꽃」 -

(나)

나의 노래가 끝나는 날은  
나의 가슴에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

새로운 묘연  
옛 흠이 향그러

단 한번 / 나는 울지도 않았다

새야 새 중에도 종다리야  
화살같이 날아가거라

내 슬픔은  
오직 님을 향하여

내 과녁은  
오직 님을 향하여

단 한번  
기꺼운 적도 없었다

슬피 바래는 마음만이 / 그를 좇아  
나의 노래는 벗과 함께 느끼었노라

나의 노래가 끝나는 날은  
내 무덤에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

- 오장환, 「나의 노래」 -



27.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격화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행위의 대상을 한정하는 시어를 사용하여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과거 시제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화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시어를 반복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8.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슬픔을 느끼게 하는 과거의 시간과, ㉡는 화자가 추구하는 미래의 시간과 관련된다.
- ② ㉠은 화자의 연민의 대상이며, ㉡는 화자의 의지를 시험하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이며, ㉡는 화자가 소유하고자 하는 존재이다.
- ④ ㉠과 ㉡는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상징한다.
- ⑤ ㉠과 ㉡는 모두 민족의 비극적 역사를 함축하며 화자에게 체념적 태도를 유발한다.

29.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1연과 마지막 연에서는 ‘노래’가 끝난 후의 상황을 통해, 화자가 마주할 절망적 현실과 이에 대한 체념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3연과 7연에서는 울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모습을 통해, 화자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무감각해지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③ 4연에서는 ‘새’를 통해, 6연에서는 ‘과녁’을 통해 ‘님’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좌절감과 이로 인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5연에서는 슬픔의 대상을 ‘님’으로 한정하고, 8연에서는 그 슬픔을 ‘벗’과 공유함으로써 개인적 정서를 외부로 확장하고 있다.
- ⑤ 2연에서는 ‘옛 흙’의 향기를 통해 과거의 삶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일제 강점기 말기라는 비극적 시대를 살아간 지식인들은 상실된 공동체의 기억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며 시대의 아픔에 대응했다. (가)는 고난의 역사를 직접 겪은 민중의 비극적 삶을 애도의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한(恨)을 위로하고 기억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나)는 현재의 고통을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희생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개인의 슬픔을 미래를 향한 실천적 의지로 승화시키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① (가)에서 ‘피 한 방울 받지 않았음에도 ‘오랑캐의 뒷머리와’ 닮은 모습은 공동체의 고난이 외부의 오해로 인해 발생했음을 드러내는군.
- ② (나)에서 화자가 자신의 ‘노래가 끝나는 날’에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의 고통을 희생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 ③ (가)의 화자가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주려는 행위는 역사적 비극 앞에 선 연민의 정서를, (나)의 화자가 ‘화살같이 날아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의지를 드러내는군.
- ④ (가)의 ‘쫓겨 갔단다’는 상실된 공동체의 과거 기억과, (나)의 ‘슬피 바라는 마음’은 미래의 지향점을 성취하기 위한 현재의 고통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울어 보렴’은 민중에 대한 위로의 태도를, (나)의 ‘울지도 않았다는 것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자아를 지키기 위한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는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심생은 우연히 만난 소녀의 외모에 반해 매일 밤 소녀의 집을 찾아 담을 넘어 소녀의 방문 앞에서 소녀를 기다린다.

그 뒤로는 이것이 일과가 되었다. ㉠담을 넘어 저물어서 갔다가 새벽이면 돌아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20일 동안 계속하였으나, 그래도 그는 게을리 아니하였다. 소녀는 초저녁에는 소설책을 읽기도 하고 바느질을 하기도 하다가 밤중에 이르러 불이 꺼지는데, 이내 잠이 들기도 하고 더러 번민으로 잠을 못이루기도 하는 것이었다. 6,7일이 지나자 문득 몸이 편치 못하다고 겨우 초경(初更)부터 베개에 엎드려 자주 손으로 벽을 두드리며 긴 한숨 짧은 탄식을 내쉬어 숨결이 창 밖까지 들리었다. 하루 저녁 하루 저녁 갈수록 더해만 갔다.



스무날 쯤 되는 밤이었다. 소녀가 갑자기 **마루로부터 내려와** 바깥벽을 돌아 심생이 앉아 있는 처소에 당도하였다. 심생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끈 일어서 소녀를 **붙잡**았다. 소녀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낭군은 소광통교에서 만났던 그분 맞죠? 저는 처음부터 낭군이 와 계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벌써 스무날째 밤이군요. 이 손  
[A] 좀 놓으세요. 제가 소릴 지르면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제 말대로 하시면 저쪽 뒷문을 열고 낭군을 맞이할게요. 어서 제 말대로 하세요.”

심생이 이 말을 믿고 물러서서 기다렸다. 소녀는 다시 벽을 따라 뱅 돌아 방으로 들어가더니 여종을 불러 말했다.

“어머니께 가서 주석으로 만든 큰 자물쇠를 좀 가져오너라. 밤이 너무 캄캄해서 누가 들어올까 봐 무섭구나.”

여종이 내당(內堂)으로 가더니 얼마 안 있어 자물쇠를 가지고 왔다. 소녀는 심생과 약속했던 **⑥ 뒷문**으로 가 자물쇠를 걸고는 손수 열쇠로 딸가닥 소리를 내며 자물쇠를 채웠다.

그러고는 즉시 방으로 돌아가 등불을 붙어 잤다. 아무 기척도 내지 않고 깊이 잠든 채했지만 실은 잠자지 않고 있었다. 심생은 속은 것이 분하면서도 그나마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다. 그날도 잠긴 문 앞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돌아갔다.

(중략)

소녀의 집은 본래 부유했다. 그로부터 심생을 위하여 산뜻한 의복을 정성껏 마련해 주었으나, 그는 집에서 이상하게 여길까 보아서 **감히 입지 못하였다**.

그러나 심생은 아무리 조심을 하여도 집에서는 그가 바깥에서 자고 오래 돌아오지 않는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절에 가서 글을 읽으라는 명이 내리었다. 심생은 **마음에 몹시 불만**이었으나, 집의 압력을 받고 또 친구들에게 이끌리어 **책을 싸들고** 북한 산성으로 올라갔다.

③ **선방(禪房)**에 머문 지 근 한 달 가까이 되었다. 심생에게 소녀의 언문(諺文)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편지를 펴보니 유서(遺書)로 영영 이별하는 내용이 아닌가. 소녀는 이미 죽은 것이다. 그 **편지**의 내용은 대강 이러했다.

봄추위가 아직도 쌀쌀하운데 절간의 글공부에 옥체 평안하시옵니까. 항상 사모하옵는 바 어느날이라 잊으리까.

소녀는 도련님께옵서 떠나신 이후로 우연히 한 병을 얻어 점점 골수에 사무쳐 백약이 무효하온지라 이제 필경 죽음밖에 없는 줄 알았사옵니다. 소녀처럼 박명한 몸이 살아본들 무엇하로리까만은, 우선 세 가지 큰 한(恨)을 가슴에 안고 있으니 죽음에 당해서도 눈을 감지 못하옵니다.

소녀 본래 무남 독녀로 부모님의 사랑하옵심을 반자와 장차 부모님께서는 적당한 사위를 구하여 만년(晩年)의 의지를 삼고 후일의 계책을 마련코자 하였더니, 호사 다마라 뜻밖에 악연에 얽히었군요. 여라(女蘿)가 외람되게 높은 소나무에 붙었으나 주진지계(朱陳之計)\*가 이제 끊어졌사옵니다. 이는 소녀가 아무 낙이 없이 시름하다가 마침내 병으로 죽음에 이른 까닭이옵고, 이제 고당학발(高堂鶴髮\*)은 영원히 **의탁할** 곳이 없게 되었사오니, 이것이 첫째 한이옵니다.

여자가 출가하면 비록 종년이라도 문에 기대어 손님을 맞는 기생의 몸이 아닌 다음에야 남편이 있고 또 시부모가 있겠지요. 세상에 **시부모가 모르는 며느리**가 있사오리까. 소녀 같은 몸은 남의 속임을 받아 몇 달이 지나도록 일찍이 도련님 댁의 늙은 여자 하인 하나도 보지 못하였사오니, 살아서 **부정한 자취**를 남겼고, 죽어서 돌아갈 곳 없는 귀신이 될 것이라 이것이 둘째 한이옵니다.

부인이 남편을 섬기매 음식을 장만하여 공쾌하고 의복을 지어서 입으시도록 하는 일보다 큰 일이 있을까요. 도련님과 상봉한 이후 세월이 오래지 않음도 아니요, 지어드린 의복이 적다고 할 수도 없는데, 한 번도 도련님에게 한 사발 밤도 집에서 자시게 못하였고, 한 벌 옷도 입혀드리지 못하였으며, 도련님을 모시기를 다만 침석(枕席)에서뿐이었습니니다. 이것이 셋째 한이옵니다.

그리고 상봉하온 지 얼마 아니되어 문득 길이 이별하옵고, 병으로 누워 죽음이 다가왔으나 대면하와 영결을 못하옵니다. 이러한 여자의 슬픔을 어찌 죽히 군가에게 말씀드리오리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러 창자가 이미 끊어지고 뼈가 녹으려하옵니다. 비록 연약한 풀이 바람에 쓰러지고 시들은 꽃잎이 진흙이 된다 하온들 끝없는 이 원한은 어느날이라 다하리오.

오호라! 창 사이의 밀회는 이제 그만입니다. 바라옵건대 도련님은 소녀를 염두에 두시지 마옵시고, 더욱 글공부에 힘쓰시어 일찍이 청운(靑雲)의 뜻을 이루옵소서. 옥체를 내내 보중하옵기 천만 비옵니다.

-이옥, 「심생전」-

\*주진지계: 혼인을 뜻하는 말

\*고당학발: 늙으신 부모님

3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인물의 의지적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은 강요에 따른 인수동적 행위와 관련이 있다.
- ② ㉠을 넘는 인물로 인해 촉발된 상황은 ㉡에서 다른 인물의 대응을 유발하고 있다.
- ③ ㉠은 인물의 내적 갈등과 관련이 있고, ㉢은 인물의 비극적 상황과 연결되고 있다.
- ④ ㉠과 ㉡는 인물 간의 만남을, ㉢은 인물 간의 이별을 야기하는 사건과 관련된다.
- ⑤ ㉠과 ㉢은 인물을 향한 애정과, ㉡는 속은 것을 안 인물의 정서와 관련이 있다.

32. [A]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행동이 지닌 무모함을 지적하며 자신의 우월한 처지를 과시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하며,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완곡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음을 밝히고, 경고를 통해 상황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는 척하며, 향후 만남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상대방과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제삼자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33. [편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죽음을 알리면서 상대방의 안녕과 미래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 ② 사회적 규범 속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을 토로하고 있다.
- ③ 상대방과의 이별이 자신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했음을 시간의 선후 관계를 통해 암시하고 있다.
- ④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다.
- ⑤ 자신을 자연물에 빗대어 처지를 드러내고,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심생전」은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욕망의 간극, 신분적으로 우월한 남성의 우유부단한 태도, 적극적이면서도 유교적 규범을 내면화한 여성의 순종적인 모습 등으로 인한 남녀 주인공의 비극적 사랑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 과정에서 당대 윤리적 규범의 문제점에 대해 은밀하게 고발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서사에 드러나기도 한다.

- ① 심생이 '마루로부터 내려'온 소녀를 '붙잡'는 것에서, 사회적 규범보다 개인적 욕망이 앞서는 인물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소녀가 부모님이 '의탁할 곳'이 없게 된 것과 자신이 '부정한 자취'를 남겼다고 말하는 것에서, 도덕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심생이 소녀가 지어준 옷을 '감히 입지 못하였다'는 것에서, 여인과의 사랑보다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그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④ 심생이 '마음에 몹시 불만'임에도 '책을 싸들고' 절로 들어가는 것에서, 사랑에 대한 열망과 신분 질서에 대한 순응 사이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군.
- ⑤ 소녀가 스스로 '시부모가 모르는 며느리'라고 인식하는 데에서, 외부의 규범이 가진 모순을 대상에게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

수능맛집

[35-37] 다음은 라디오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소, 마음 듣기>입니다.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살 때가 있죠. 오늘은 말하는 방식 때문에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학생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별사탕’이라는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 (사연 낭독)

안녕하세요. 얼마 전 가장 친한 친구와 축제 부스 준비 회의를 하다 다뤘습니다. 친구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저는 솔직히 그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건 좀 별론데? 시간도 없고 비효율적이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제 댜에는 솔직한 의견이었는데, 친구는 “넌 항상 그런 식이야.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잖아.”라며 화를 냈습니다. 돌이켜보니 이전에도 제가 무심코 던진 직설적인 말에 친구들이 상처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제 의견을 잘 전달할 수는 없을까요?

**진행자:** (차분한 목소리로) 네, 별사탕 님, 정말 속상했겠네요. 좋은 의도였는데 친구가 화를 내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은 보통 상대방의 의견을 바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건 별로다’라는 직접적인 평가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하죠. 이럴 땐 ‘쿠션 화법’을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말을 하기 전에 쿠션처럼 부드러운 표현을 덧붙여 상대방이 받을 충격을 줄여주는 대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네 의견도 좋은데, 혹시 이런 점은 어떨까?”처럼 칭찬이나 동의의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 후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면, 친구도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다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별사탕 님의 따뜻한 진심이 친구에게도 분명 전해질 겁니다. (음악)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5. 라디오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두 관점을 절충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청취자의 고민에 공감을 표하며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③ 전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의 해결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청취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예로 들어 조언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⑤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36. 다음은 방송을 들은 ‘별사탕’이 비슷한 다른 상황에 진행자의 조언을 적용해 본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lt;상황&gt;

동아리 후배가 홍보 포스터 시안을 만들어 왔는데, 디자인이 활동 내용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상황.

- ① “이 디자인은 우리 동아리랑 전혀 안 어울리는데? 다시 만들어 오는 게 좋겠다.”
- ② “포스터 만들어 오느라 고생 많았네. 그런데 이 디자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아?”
- ③ “내가 열심히 한 건 알겠지만, 이 디자인은 좀 곤란해. 내가 시안을 다시 만들어 볼게.”
- ④ “시안 만들어 줘서 정말 고마워. 혹시 우리 동아리의 활기찬 느낌을 더 살릴 수 있는 다른 디자인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까?”
- ⑤ “시안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런데 이 포스터는 글씨체가 너무 작아서 눈에 잘 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그 부분만 수정해 줄 수 있니?”

37.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lt;보기&gt;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lt; 보 기 &gt; —

**청취자 1:** 나도 직설적으로 말해서 친구들이 서운해할 때가 많았는데, 방송을 듣고 내 문제를 알게 됐어. 덕분에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쿠션 화법이라는 명칭의 의미는 뭐지?

**청취자 2:** ‘쿠션 화법’도 결국엔 내 의견을 말하기 위한 거잖아. 친구가 ‘어차피 비판할 거면서 그냥 좋게 말하는 척하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 ① ‘청취자 1’은 방송 내용을 자신의 실제 경험과 관련지어 수용하고 있다.
- ② ‘청취자 2’는 방송에서 제시된 해결 방안이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문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 ③ ‘청취자 1’은 방송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화법에 대한 문제점을 성찰하고 있다.
- ④ ‘청취자 1’과 ‘청취자 2’는 모두,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표출하고 있다.
- ⑤ ‘청취자 1’은 ‘청취자 2’와 달리, 진행자가 제시한 해결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38-42] (가)는 주민 센터 건립에 대한 시청 직원과 시민 대표의 협상이고, (나)는 협상을 참관한 학생의 감상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청 직원:** 안녕하세요, 시민 대표님. 희망동 주민 센터 건립 부지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시청에서는 표준 설계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표준 설계안은 예산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시민 대표:** 안녕하세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센터 건립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표준 설계안에 있는 소규모 체력 단련실보다는 청소년과 노년층 모두를 위한 ‘문화 강좌실’과 ‘작은 컴퓨터 공원’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시청 직원:** 네, 주민분들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배정된 예산이 한정적이라, 설계안을 변경하여 공원 부지를 확보하고 내부 구조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민 대표:** 비용 문제를 저희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센터 뒤편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면 부지 매입비는 들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주민들로 구성된 조경 봉사단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시청 직원:**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해주신다니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화 강좌실은 어떻게 할까요? 기존 체력 단련실 공간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텐데요.

**시민 대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체력 단련실과 기존의 소회의실 2개를 통합하여, 가변형 벽체를 설치한 ‘다목적 강좌실’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 직원:** 가변형 벽체를 활용한 다목적 강좌실이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시민 대표:** 평소에는 하나의 큰 공간으로 강연이나 영화 상영회를 열고, 필요시에는 벽체로 공간을 둘로 나누어 소규모 동아리 활동이나 강좌 공간으로 쓰는 겁니다. 공간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시청 직원:**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이군요. 하지만 가변형 벽체 설치가 표준 설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민 대표:** 초기 설치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개의 방을 따로 관리하는 것보다 냉난방비 등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여 센터의 설립 취지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직원:**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군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건축팀과 신속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 대표:** ㉤저희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

제목: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는 길, 협상

지난주, 나는 시청에서 주관한 ‘청소년 정책 참여단’의 일원으로서 희망동 주민 센터 건립 협상 과정을 참관했다. 처음에는 예산을 증시하는 시청과 복지를 증시하는 주민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나의 예상과 달리, 협상은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창의적인 과정이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시민 대표의 철저한 준비였다. 그는 ‘주민 설문 조사’라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일부의 의견이 아닌, 주민 다수의 목소리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또한, 시청 측이 우려하는 예산 문제에 대해 ‘조경 봉사단’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은 시청 직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물론 시청 직원의 역할도 중요했다. 그는 처음에는 예산 문제를 들며 난색을 보였지만, 시민 대표의 합리적인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자세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기만 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었을 ‘가변형 벽체를 활용한 다목적 강좌실’이라는 창의적인 해결책은, 이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양보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번 협상 참관을 통해 나는 진정한 협상이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양측 모두가 승자가 되는 ‘윈윈 전략’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상대방을 이기려는 태도가 아닌,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생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 동아리나 학급에서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나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겠다.

38.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상대방의 제안을 반박하기 위해,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예산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들의 초기 입장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논의를 구체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⑤ ㉤: 협상 타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며, 합의된 내용이 신속하게 이행될 것을 상대방에게 촉구하고 있다.



39. 다음은 (나)의 1문단의 초고이다. 1문단에 반영된 수정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초고>

나는 희망동 주민 센터 건립 협상을 보았다. 시청과 주민들의 입장이 달라서 걱정했다. 하지만 협상은 잘 되었다.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찾았다.

<수정 요구>

㉠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드러나도록 참관 배경을 밝힐 것.

㉡ 협상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드러나도록 어휘를 수정할 것.

㉢ 협상 결과를 예측했던 내용과 실제 협상 양상을 대비할 것.

㉣ 협상 타결 이후, 결과에 대한 시청과 주민들의 상반된 반응을 추가할 것.

㉤ 협상 과정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문장을 덧붙일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40. (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의 내용이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시민 대표가 제시한 설문 조사는 (나)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다수의 목소리임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언급되었다.
- ② (가)에서 시청 직원이 제기한 예산 문제는 (나)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 예상하게 한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 ③ (가)에서 시민 대표가 제안한 조경 봉사단은 (나)에서 시청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으로 언급되었다.
- ④ (가)에서 시청 직원이 제안한 표준 설계안은 (나)에서 시청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근거로 언급되었다.
- ⑤ (가)에서 시민 대표가 제안한 가변형 벽체는 (나)에서 양측이 서로를 존중하고 양보하여 도출된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언급되었다.

41. (가)의 협상 참여자들이 사용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청 직원은 표준 설계안의 장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시민 대표를 설득하고 있다.
- ② 시민 대표는 상대방의 제안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며, 논의의 쟁점을 예산 문제로 한정하고 있다.
- ③ 시청 직원은 시민 대표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자신들의 초기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④ 시민 대표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하고 있다.
- ⑤ 시청 직원과 시민 대표는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잠정적 합의안에 대한 수용과 거부를 반복하고 있다.

42.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협상 참여자들의 감정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 ② 협상 결과가 가져올 사회적 파급 효과를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 예측하고 있다.
- ③ 협상 참여자들의 소통 방식과 태도에 주목하여 협상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④ 협상의 쟁점별로 양측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요약한 후, 절충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⑤ 협상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3-45]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글의 목적:** 우리 지역의 ‘누리 축제’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매체:** 학교 교지 ‘우리들’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 및 교직원

**글쓰기 계획:**

(서론) 누리 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기한다.

(본론)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결론) 제안의 기대 효과를 밝히고 참여를 독려하며 마무리한다.

[학생의 초고]

**제목:**

매년 가을이면 우리 지역의 큰 잔치인 ‘누리 축제’가 열린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누리 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었고, 방문객들로부터 ‘매년 똑같은 축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축제의 핵심 콘텐츠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축제는 외부 상인들이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와 초청 가수의 공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매력을 보여주기에 역부족이다. 지역의 특색은 사라지고 어느 지역이나 있을 법한 평범한 축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청년 문화 구역’을 조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동아리 체험 부스, 중고 물품 장터, 버스킹

공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축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둘째,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축제 콘텐츠와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우리 지역에는 실력 있는 공예가들과 개성 있는 작은 가게들이 많다. 이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방 체험 프로그램’이나 ‘우리 동네 가게 지도 만들기’와 같은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방문객들에게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누리 축제는 특정 세대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모든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 ‘청년 문화 구역’ 조성과 ‘지역 사회 연계’라는 두 날개를 달고, 우리 누리 축제가 다시 한번 모두에게 사랑받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기대한다.

43. ‘초고’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누리 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기한다.
- ②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③ 제안하는 해결 방안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 ④ 제안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를 밝히며 마무리한다.
- ⑤ 예상 독자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며 마무리한다.

44. 〈보기〉를 반영하여 ‘초고’의 제목을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본문에 제시된 두 가지 핵심 활성화 방안이 모두 드러날 것.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글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드러낼 것.

- ① ‘청년’과 ‘지역’이라는 날개를 달고 다시 비상하는 누리 축제
- ② 청년들의 참여로 활기 넘치는 누리 축제를 만들자
- ③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④ 누리 축제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제안: 청년 구역과 지역 연계
- ⑤ 잠자는 우리 지역 축제를 깨울 시간

45.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읽고 수행한 〈학습 활동〉의 일부이다. ㉠와 ㉡를 완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학습 활동 〉

- 주장하는 글을 선정하여 읽고, 이에 반박하는 글을 써 보자.

- 주장하는 글을 선정하고 반박할 부분을 정해 보자.

**선정한 글:** 학교 교지 ‘우리들’에 실린 ‘초고’

**반박할 부분:** 선정한 글의 3문단 (‘청년 문화 구역’ 조성 제안)

- 반박하는 글의 내용을 작성해 보자.

‘청년 문화 구역’ 조성은( ㉠ ) 왜냐하면,( ㉡ ) 때문이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레트로(복고풍)’ 축제들이 처음에는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결국 어느 지역을 가도 비슷한 모습이 되어 버린 것이 그 예이다.

- ① ㉠: 지역의 특색을 약화시키는 대안이다  
㉡: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는 대부분 상업적 속성을 띠고 있어, 축제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기
- ② ㉠: 축제의 본질을 흐리는 방안이다  
㉡: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보여주는 데 기여하기보다, 청년 문화라는 또 다른 획일성으로 축제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기
- ③ ㉠: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제안이다  
㉡: 축제의 주 이용객인 중장년층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세대의 취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했기
- ④ ㉠: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다  
㉡: 축제의 핵심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획을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 ⑤ ㉠: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 외부 상인 위주의 먹거리 장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년 문화 구역만으로는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수능맛집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동(使動)은 문장의 주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이다. 이러한 사동의 의미는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결합하는 파생적 사동법이나, 용언의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하는 통사적 사동법을 통해 실현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옷을 입다.’라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들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파생적 사동)나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통사적 사동)가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동문은 의미상 차이를 보인다. 통사적 사동문인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는 어머니가 말이나 지시 등으로 시키고, 옷을 입는 행위는 아이가 직접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간접 사동이라 한다. 반면, 파생적 사동문인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하나는 어머니가 아이의 옷 입는 행위를 손수 도와준 것처럼 주체가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사동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 스스로 옷을 입도록 시키기만 한 간접 사동의 의미이다. 이처럼 파생적 사동문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어 중의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파생적 사동문의 중의성은 문맥이나 특정 부사어의 사용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에게 손수 옷을 입혔다.’와 같이 주체의 직접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오면 이 문장은 직접 사동으로만 해석된다. 반면, 간접 사동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싶을 때는 주로 통사적 사동 구성을 사용한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혼자서 옷을 입게 했다.’라고 하면, 행위의 주체가 아이임이 분명해져 간접 사동의 의미만 남게 된다.

물론 모든 파생적 사동문이 중의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셨다.’의 경우, 선생님이 학생들의 눈앞에서 책장을 대신 넘겨주는 행위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처럼 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직접 사동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 또는 직접 사동의 의미만 갖기도 한다. 또한 사동문의 사동주는 주어로 나타나지만, 피사동주는 주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 ‘철수가 동생을 울렸다.’처럼 목적어로 나타나거나, ‘어머니가 아들에게 책을 읽혔다.’처럼 부사어로 나타나는 등 그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35. 다음 중 중의성을 띠고 있지 않은 문장은?

- ㉠ 누나가 동생에게 약을 먹였다.
- ㉡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
- ㉢ 코치가 선수에게 땀이 나도록 옷을 더 입혔다.
- ㉣ 철수가 재밌는 표정으로 우리를 웃겼다.
- ㉤ 엄마가 아기에게 우유병을 물리셨다.

36. 밑줄을 바탕으로 &lt;보기&gt;의 문장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lt; 보 기 &gt; —

- ㉠ 경찰이 범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 ㉡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시게 했다.
- ㉢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를 빨리 읽혔다.
- ㉣ 동생이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낮추었다.
- ㉤ 엄마가 아이의 손을 씻겼다.

- ① ㉠에 부사 ‘손수’를 추가하면, 경찰이 범인에게 직접 수갑을 채우는 직접 사동의 의미로 해석된다.
- ② ㉡는 통사적 사동문이므로, 할머니가 손자에게 옛날이야기를 하도록 시키는 간접 사동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 ③ ㉢는 동사 ‘읽다’의 의미적 특성상 주체가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사동으로 해석되기 어려우므로 중의성을 띠지 않는다.
- ④ ㉣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으므로, 부사 ‘스스로’를 넣어 표현하면 직접 사동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 ⑤ ㉤는 중의성을 띠는 문장이므로, 엄마가 아이 스스로 손을 씻도록 시켰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려면 ‘아이의 손을 씻게 했다’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37. &lt;보기&gt;에 제시된 문장의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lt; 보 기 &gt; —

- ㉠ 영희는 집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
- ㉡ 내가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아닌 바로 너란다.
- ㉢ 시는 모름지기 모두가 함께 나누는 빵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 ㉣ 모름지기 시는 모두가 함께 나누는 빵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 ① ㉠~㉣에 나타난 부사어는 모두 서술어를 꾸미고 있다.
- ② ㉠~㉣은 모두 부사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은 모두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 부사어가 사용되고 있다.
- ④ ㉠~㉣을 통해 부사, 용언의 활용형, 부사에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의 부사어를 찾을 수 있다.
- ⑤ ㉢~㉣을 통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경우, 문장 내의 위치 이동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38.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의 ㉠ ~ ㉣에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 < 보기1 > —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만 있지만, 중세 국어의관형격 조사는 '의, 의, 시'이 있었다. 이 중 '의, 의, 시'은 결합하는 명사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명사			관형격 조사
의미 특징	끝 음절 모음		
사람이나 동물	양성 모음	+	의
사람이나 동물	음성 모음	+	의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	양성 모음/ 음성 모음	+	시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님	양성 모음/ 음성 모음	+	시

(예) 늑+의 : 늑미 뜯 거스디 아니하거든 (늑의 뜻 거스르지 아니하거든)  
 거북+의 : 거북의 터리 곧고 (거북의 털과 같고)  
 大王+시 : 大王시말쌈미사 울커신마론 (대왕의 말쌈이야 울으시지만)  
 나모+시 : 나못 여름 먹느니 (나무의 열매 먹으니)

— < 보기2 > —

- [자롭+㉠] 목수미 無常흔 거시라  
 (사람의 목숨이 무상한 것이라)
- [그의+㉡] 아버니미 잇느닛가  
 (그대의 아버님이 있습니까?)
- 그 가운데 [구름+㉢] 氣運이 느는 龍목을 조초 잇도다  
 (그 가운데 구름의 기운이 나는 용을 좇아 있도다)

- | ㉠   | ㉡ | ㉢ |
|-----|---|---|
| ① 의 | 시 | 시 |
| ② 시 | 시 | 의 |
| ③ 의 | 의 | 시 |
| ④ 의 | 시 | 의 |
| ⑤ 시 | 의 | 의 |

39. 다음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넓냐?[넌랴]	㉡ 색연필[생년필]
㉢ 물약[물락]	㉣ 흙하고[흐카고]
㉤ 안팎[안팍]	

- ① ㉠과 ㉢은 모두 음운의 개수가 늘어났다.
- ② ㉠과 ㉤은 모두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 ③ ㉢과 ㉤은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 ⑤ ㉡과 ㉣은 모두 음운의 개수를 바꾸는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다.

[40-43] (가)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고, (나)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학생회 학생들의 온라인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안녕하세요, 시사 포커스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 급식, 과연 믿고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실태를 박준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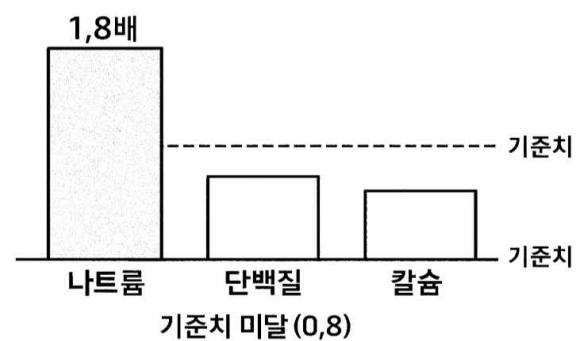


박기자: 네, 저는 지금 OO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지만, 학생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은데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 솔직히 맛도 없고, 채소는 시들하고 고기는 냄새날 때도 있어요. 그냥 김치랑 밥만 먹고 남기는 친구들이 많아요.

정상 권장량 대비 vs 서울 시내 고등학교 급식



박기자: 저희 취재팀은 서울 시내 고등학교 세 곳의 급식을 수거해 전문 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트륨 수치는 청소년 권장량의 최대 1.8배에 달하는 반면, 성장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칼슘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교수(식품영양학과): 고나트륨 저단백 식단이 지속되면, 오후 학습 집중력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박기자: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최저가 입찰 위주의 불투명한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과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부실 급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준형 기자, 수고했습니다.

(나)

서준의 대화방

다들 어제 '시사 포커스' 봤어? 서준

지아 응, 봤어. 우리 학교 급식 얘기하는 줄.

민혁 특히 나트륨 통계 나올 때 진짜 놀랐어. 권장량의 1.8배라니.

맞아. 남의 학교 얘기 같지가 않았어. 이 문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서준

지아 ㉠당연하지. 이걸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이랑 직결된 거잖아.

민혁 학습권 문제이기도 해. 방송에서 전문가가 집중력 저하된다고 했어.

유나 건의를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지아 ㉡방송 내용처럼 '영양 불균형'이랑 '식자재 품질' 문제를 짚어서 정식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해.

민혁 좋아. 해결 방안도 같이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겠지?

지아 응. 아예 '학생 참여 급식 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건 어때?

급식 위원회? 좋은 생각이다. 서준

민혁 학생이 참여하면 식단이나 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정말 좋지.

유나 아이디어는 좋은데, 너무 공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위원회 만들어라'라고만 하면 선생님들이 방어적으로 나오실 수도 있어.

일리 있는 거정미네. 서준

지아 ㉢그래서 '비판'이 아니라 '함께 개선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방향을 강조해야 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같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거야.

유나 그래, 그거 좋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의견을 모아서 같이 전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민혁 설문 조사 말하는 거지? 좋은 방법이야. 근거 자료가 있으면 훨씬 설득력 있지.

민혁 [링크]

민혁 [설문 ...]

민혁 마침 작년에 교육청에서 배포한 '학교 급식 만족도 표준 설문 문항'이 있네. 이것 활용하면 객관성을 높일 수 있겠다.

오, 잘 찾았다. 그럼 설문부터 바로 시작할까? 서준

민혁 아니, 설문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건의문부터 먼저 제출하자. 어제 방송 내용이 워낙 강력한 근거니까.

지아 맞아. 건의문에 '추후 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세부 의견을 정식으로 전달하겠다'고 약속하는 걸로 하고.

좋아. 그럼 계획 정리한다. 서준

[정리 계획 초안.hwp]

HWP

지아 내가 초안 써볼게.

오케이. 그럼 초안 나오면 다 같이 검토하고 제출하자. 다들 수고했어. ㉤ 서준

40.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교 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으로 학부모 참여 위원회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 ② 전문가 인터뷰와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급식 실태에 대한 고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학생들의 인터뷰만을 근거로 제시하여, 급식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인 불만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④ 특정 학교의 급식만을 분석하여, 해당 학교의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⑤ 급식 문제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학생, 교사, 영양사 등 다양한 관계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의의 성격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공식적 차원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앞선 논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를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 ③ ㉢:대화의 흐름을 전환하여, 본래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 ④ ㉣:'민혁'이 제안한 설문 조사 계획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대안을 내세워 관찰시키고 있다.
- ⑤ ㉤:'민혁'의 의견에 반대하며, 설문 조사를 생략하고 건의문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선취하고 있다.

42. (나)의 정보 제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영상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가)의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② 설문 조사 링크와 해당 페이지의 미리 보기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 ③ 투표 기능을 사용하여, '급식 개선 위원회' 신설에 대한 참여자들의 찬반 의견을 확인하고 있다.
- ④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말풍선의 색상을 다르게 하여, 각 참여자의 발언 순서와 핵심적인 역할을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43. (나)의 대화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혁'은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설문 조사를 나중에 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② '유나'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단정적이지 않게 제시하고 있다.
- ③ '지아'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건의 활동에서 자신들이 취해야 할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서준'은 상대방에게 행동을 지시하기 위해, 여러 참여자들을 청자로 하는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 ⑤ '민혁'은 부사어를 사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부각하고 있다.

[44-45] 다음은 학생의 개인 누리집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블로그

공지 사항	<b>나의 일상</b>	나의 영상	유용한 정보
-------	--------------	-------	--------

---

제목 : 낚음의 쓸모, 새로움의 가치 - 부산 '강강이 예술마을'에 다녀와서

---

내가 방문한 곳은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강강이 예술마을'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가 있었던 곳으로, 1970년대까지 선박 수리업의 중심지였다고 한다. 배 표면에 붙은 녹을 망치로 두드려 벗겨낼 때 나던 '강강' 소리 때문에 '강강이 마을'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마을도 활기를 잃어갔다.



(사진) 폐선박 부품으로 만든 공공 미술 작품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곳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역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버려진 공장과 창고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이다. 마을 곳곳에는 폐선박 부품으로 만든 조형물이 설치되고, 낚은 공장 벽에는 마을의 역사를 담은 벽화가 그려졌다. 과거의 흔적 위에 현대적인 예술 감각이 덧입혀지자, 마을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나는 '보존'과 '발전'이 서로 다른 말이 아님을 깨달았다. 낚은 것을 무조건 허물고 새로 짓는 것만이 발전은 아니다. 그 장소가 품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이야기를 존중하고, 그 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할 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강이 예술마을'이 보여주었고 있다.

#부산여행 #강강이예술마을 #도시재생 #업사이클링 #여행스타그램

---

댓글 3
 좋아요 8

댓글 쓰기

좋아요

↳ 민지

와, 사진 보니까 진짜 가보고 싶다! 버려진 공간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신기하네. 나도 방학 때 가봐야겠어. 좋은 곳 소개해줘서 고마워! 😊

↳ 성훈

포스팅 잘 봤어. 혹시 거기까지 가는 교통편은 어땠어? 찾아 보니까 시내에서 좀 멀던데, 버스라 가기 편한지 궁금해.

↳ 다혜

오, 여기 가봤구나! 나도 얼마 전에 폐공장을 개조한 문래동 예술촌에 다녀왔는데, 느낌이 비슷하더라. 낚은 기계랑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이런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더 많아지면 좋겠어.

44. 위 누리집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게시물의 내용을 요약한 표를 제시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
- ② 게시물 내용과 관련 있는 핵심어를 제시하여 독자의 정보 검색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 ③ 익명의 독자도 자유롭게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개방성을 높이고 있다.
- ④ 게시물에 대한 독자의 주관적인 감상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게시물 작성 시간을 실시간으로 표시하여 정보의 최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45. 다음은 댓글 반응을 토대로 학생이 누리집을 수정하기 위해 생각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성훈’의 질문을 고려하여, 본문에 ‘깡깡이 예술마을’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나 소요 시간 같은 교통 정보를 추가해야겠어.
- ② ‘다혜’의 댓글처럼 유사한 장소를 아는 독자들이 많을 수 있으니, 문래동 예술촌 등 다른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본문에 추가하여 정보의 폭을 넓혀야겠어.
- ③ ‘민지’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니, 글의 말미에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와 같이 방문을 권유하는 문장을 명시적으로 넣어 독자의 방문을 유도해야겠어.
- ④ 본문에 제시된 사진이 한 장뿐이라 아쉬우니, 마을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조선소 시절의 흑백 사진을 추가로 게시해야겠어.
- ⑤ ‘다혜’가 언급한 문래동 예술촌과 ‘깡깡이 예술마을’의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해, ‘조선소와 폐공장이라는 공간의 역사적 배경이 달라 예술적 감수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